

해인(海印) 1

해인(海印)이란 불교 용어 중 하나로 부처의 지혜로 우주의 모든 만물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대해인(大海印), 해인삼매(海印三昧), 해인정(海印定)이라고도 한다. 대해인은 바다가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삼매(三昧)와 정(定)은 해인삼매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삼매는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경지를 말한다.

증산도에서는 해인의통(海印纏綿)이라고 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도장이라고 한다. 격암유록에서는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기는 해인이라고 하였고 어디든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해인이라고 하였으며 그 능력을 가늠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해인이라고 하였다. 과연 해인이 무엇인지 격암유록의 내용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격암유록(格菴遺錄) 초장(初章)

渡海移山海印理 天下人民審判機
 도해이산해인리 천하인민심판기
 四口合體全田理 黃庭經讀丹心田
 사구합체전전리 황정경독단심전
 四方中正從金理 日月無光不夜城
 사방중정종금리 일월무광불야성
 落盤四乳十字理 死中求生完然覺
 낙반사유십자리 사중구생완연각
 水昇火降病却理 不老不死甘雨露
 수승화강병각리 불로불사감우로
 三人一夕修字理 真心不變篤信天
 삼인일석수자리 진실불변독신천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기는 해인(海印)의 이치는 천하 만민을 심판하는 기틀과 같다. 바다와 산은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즉, 마귀를 죽이는 해인의 엄청난 능력을 말하며 인생들을 심판하여 알곡과 썩음을 가르는 구세주의 권세와 능력이다.
 입구(口)자 네 개가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 온전한 밭 전(田)자의 이치 속에 황정(黃庭)이 있는데 황정은 구세주의 자리인 중앙 토궁(土宮)이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단전에 힘을 모아 경을 계속 외워야 한다. 사망 가운데 중정(中正, 中央 土鍾)의 주인공인 금운(金運)을 따라야 하는 이치이다. 금운이 바로 토운의 주인공이라는 말이다. 해와 달이 빛이 없어도 그 성은 불야성을 이루게 된다.
 낙반사유십자리(落盤四乳十字理)는 정

반에서(米) 찻꼭지 네 개를 떨어뜨리면 열십(十)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완성의 하나님인 되는 이치이다. 죽음 가운데서 생을 구하는 이치를 완전하게 깨달아야 한다.

오행의 원리로 천일생수북(天一生水北) 지이성화남(地二成火南)으로 남과 북을 수직으로 세우면 남(南)이 위로 올라가고 북(北)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므로 수승화강(水昇火降)이란, 아래(北)에 있는 하나님 물의 기운은 상승하고 위(南)에 있는 땅의 불의 기운은 하강하여 중앙 토궁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치이다.

수승화강(水昇火降)으로 죽음의 병마를 물리치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단 이슬비의 이치를 깨닫는 방법은 삼인일석(三人一夕) 닦을 수(修자이니 진실한 마음으로 닦아서 (이기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니라.

海印海印何海印 見不知而火雨露
해인해인하해인 견부지이화우로
化字化字何化印 無窮造化是海印
화자화자하화인 무궁조화사해인

해인 해인 하는데 무엇이 해인인가? 보고도 모르니 불, 비, 이슬(화우로-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성신이요 빛)이다. 화자 화자 하는데 무엇이 화인인가? 다시 말해서 붉은 연적(靛滴)을 사용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나 원하는 물품명을 화선지(畫宣紙)에 글자(字)를 쓰고 도장(印)만 찍으면 그대로 되어진다는데, 그 도장은 무엇인가? 무궁조화의 해인이다. 화우로 삼풍 해인에서 무궁조화가 나온다.

眞人眞人何眞人 眞木化生是眞人
진인진인하진인 진목화생시진인
天下一氣再生人 海印用使是眞人
천하일기재생인 해인용사시진인
眞木化生變化人 玉無瑕體不變理
진목화생변화인 옥무하체불변리
東方春生金花發 列那蝴蝶歌舞來
동방춘생금화발 열방호접가무래

진인 진인 하는데 무엇이 진인인가? 진짜 나무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된 분이 진인이다.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분이



불, 비, 이슬(화우로 해인-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성신이요 빛)

는 말이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몸을 다시 나투신 분이요 즉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요 감로해인을 임의로 용사하시는 분이 진인이다.

흙과 티가 없는 지존하신 옥체(금강불괴지신, 영생체, 금산金山, 하나님의 몸, 빛의 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니 동방 땅 대한민국에 삼위일체 하나님(정도령)이 봄에 금꽃을 피우니 세계만방에서 벌 나비가 꽃을 보고 노래하며 춤추며 날아들 듯 찾아오네.

나무는 인간과 같은 감정이 없다. 진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지존자의 몸을 옥체라 한다. 옥(玉)자는 천자인(天)을 하나로 꿰뚫는(1) 하늘의 주(主)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금화(金花)는 열반경에 '미륵부처님은 금빛 꽃을 피운다'고 하였다. 미륵부처님의 법신은 광명이니 금빛 광명을 말하며 이로써 마귀를 박멸 소탕하여 죽음을 없애 버린다.

금화는 삼천 년 만에 핀다고 한다. 석가 지운 3000년(정확히는 3007년)이 끝나면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는 의미이다. 금화가 바로 우담바라이다. 미륵부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요 정도령(하도낙서 6도 81궁)이다. 세계 만민이 죽음을 없애주는 정도령(미륵부처님)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물려들어 온다는 것이다.

弓乙論 (궁을론)

三印之中海印之水 甘露舞臨重生之理
 삼인중해인지수 감로무림중생지리
 心發白化不死永生 無殺豐登三印福壽
 심발백화불사영생 무곡풍등삼인량로

石井妙理水昇火降 湧泉心中毒氣不喪
석정묘리수승화강 용천심중독기불상
天牛耕田利在石井 천우경전리재석정

세 가지 인(火雨露화우로) 중에 해인의 생명수 감로가 춤을 추듯 임하여 거듭나는 이치이니 사람들의 마음을 흰 꽃(白花=金花=重生)처럼 변화시켜 항상 즐거움 속에서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무곡(하늘 양식)이 풍성하니 이는 화우로(火雨露三豐海印)인 세 가지 하나님의 증표인 이슬(甘露)의 양식일세.

석정(石井)의 묘한 이치 속에 물의 기운인 양(하늘)의 기운은 상승하고 불의 기운인 음(마귀)의 기운은 하강하여 하늘의 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로 마음 가운데 있는 독기를 제거하니 죽음이 없어진다. 하늘의 소(牛인) (金運금운)하나님이 마음의 밭을 갈아서 지은(田=순완성자) 농사(하늘의 양식)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석정(石井)의 생명수 샘물을 중생들에게 먹여주신다.

말운론(末運論)

天生天殺道道理 化於千萬理有海印
 천생천살도도리 화어천만리유해인
 一人擇之化 敏過自責 吸海印
 일인택지화 민과자책 흡해인
 無不通知天意理 奚如天運越低
 무불통지천의리 해어천원반저

하늘이 살리고 하늘이 죽이는 도의 이치는 천변만화하는 조화의 권능을 가진 해인에서 나오느니라. 한 분 정도령(6도

81궁)을 택하여 무궁조화의 권능을 나타내시니 허물이 있으면 재빨리 자신의 탓이라 여겨야 해인을 받게 되느니라. 무불 통지 즉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 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까닭이니라.

毒疾不犯世樂人 春氣長生永遠藥
독질불범세기인 춘기장생영원약
無疑海印天授得 高官大爵無覺智
무의해인천수득 고관대작무각지
英雄文章非能士 自下達上 下愚不己
영웅문장비능사 자하달상하우불이
先知海印出人才 幾千年間豫定運
선지해인출인재 기천년간예정운
運回朝鮮中原化 山川日月逢此運
운회조선중원화 산천일월봉차운
君出始祖回運來 訪道君子解寃日
군출시조회운래 방도군자해원일
樵謀生弓乙裏 시모자생궁을리

세속을 떠난 사람에게는 독한 질병도 침범하지 못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화평한 기운은 영생을 주는 약이요 의심할 바 없는 해인이니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니라. 고관 대작, 영웅호걸, 문장가라도 해인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능히 선바라 할 수 없느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높이 올릴 수 있는 이치를 모르면 천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인을 들고 나오

는 분이 수천 년 전부터 예정된 운수이며 이 운이 조선에 돌아오면 조선이 세계의 중심국이 되리라. 이 운을 받아 신천이 더욱 밝아지면 기다리던 임금이 오시리니 인간의 시조인 하나님의 운이 돌아옴이라. 도를 찾는 군자들이 해원하는 날에는 감(감)나무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궁을의 이치니라.

釋迦之運三千年 彌勒出世鄭氏運
석가지운삼천년 미륵출세정씨운
斥儒尚佛西運來 天地海印誰何說
척유상불서운래 천지해인수하설
佛道大師保惠印 天地人三
불도대사보혜인 천지인삼
火印雨印露印 三豐三印
화인우인로인 삼풍삼인
天民擇地 三豐之穀 穀種求於三豐也
천민택지 삼풍지곡 곡종구어삼풍야

석가지운 삼천 년(정확히는 삼천 칠 년) 후에 미륵불은 정(鄭)씨(정도령)의 운으로 세상에 나오신다. 허례허식에 빠진 유교를 배척하고 마음 밭을 중히 여기는 미륵불을 숭상하게 되니 이는 미륵불이 금운을 타고 오신이라.

천간에 무궁한 조화를 지어내는 해인을 누가 말했는가? 불도의 큰 스님이신 미륵불의 보혜인(보혜인)이요 천지인 삼수에 응한 화인(火印), 우인(雨印), 로인(露印)의 삼풍 삼인이다. 하늘 백성이 택한 땅에 삼풍의 곡식이 있으니 곡식 종자는 삼풍에서 구하느니라. - 계속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사람이 날아다니는 몸의 구조로 변한다
 The human transforms into a flying body structure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피를 가지고는 영생이 불가능하다.
 ▶ Eternal life is impossible with the blood the human have now.

마지막 날에는 그 피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 On the last day, the blood cannot remain as it is.

현재 몸 구조를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 The human can't live forever with your current body structure.

현재 가지고 있는 피도 없어지며 몸도 변화므로 심장도, 위장도, 간도, 폐도 있을 수가 없으며 그것 가지고는 영생이 안 된다.
 ▶ The blood the human currently have will disappear and human's body will also change, so human cannot have a heart, stomach, liver, or lungs, because the human cannot live eternally with that.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의 구조와 기관이 마귀의 영이 들어온 후 마귀의 기관으로 마귀의 몸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 This is because all of these human structures and organs became the organs of the devil and the body of the devil after the spirit of the devil entered into God.

즉 마귀는 사망의 신이므로 우리 몸의 신체 구조로는 늙고 죽을 수 밖에 없는 구조요 기관이므로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영생을 할 수가 없다.
 ▶ In other words, the devil is the god of death, so our body is a structure and organ that cannot help but grow old and die, so we cannot live eternally in this form.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위장이니 심장이니 하는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In God's world, structures such as the stomach and heart must change.*

by Alice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승리한 날

1면에 이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가 주체영이 되어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 나라는 의식이 바로 마귀이다. 나라는 의식으로 존재하는 그 마귀를 하나님이 이김으로 사랑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도의 요체는 나라는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라는 자리에 좌정하도록 애를 쓰고 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다. 이를 최초로 이룬 분이 바로 정도령이다.

강증산 선생은 단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기를 이윤의 도수라고 했던 것이니 심법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 이윤의 도수는 오십이지사십구년지비(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에 있다. 하나라 마지막 왕 폭군 결왕(桀王)이 정사(政事)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백성이 도탄에 빠져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윤(伊尹)이 나이 오십이

되어 어진 탕(湯)과 함침하여 걸왕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탕을 보좌에 오르게 하여 상나라 태조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증산선생이 단순한 고사를 말한 것이 아니고 궁을심승 정도령의 수도과정을 말하고자 인용한 것인즉 마음속 마귀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나라는 자리에 좌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세의 주인공 정도령이 1980년 나이 오십에 대도통하는 것을 그려 놓은 것이다.

하진사 성덕약수(下辰巳 成德握手)

“상진사 자수성가(上辰巳 自手成家), 중진사구혼 중혼삼년(中辰巳 求婚 仲婚三年), 하진사 성덕약수(下辰巳 成德握手)”라는 표현도 역시 같은 의미이다. 상진사는 궁공이요 자수성가는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며 먼저 세상에 나서는 말이니 전도관(傳道館)을 세워 중진사와 하진사를 낳아 길러낸다는

말이 된다. 다른 말로는 하락영인 생자녀(河洛靈人 生子女), 십인생산 일남일녀(十人生產 一男一女)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락영인, 십인이 궁공이며 자녀, 일남일녀가 을음이 된다.
 중진사구혼 중혼삼년의 뜻은 중진사는 상진사 하나님으로부터 도를 받은 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궁공의 하나님과 하진사 사이에서 하진사가 하나님과 혼인하는 것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 하진사 성덕약수에서 성덕(成德)은 도성덕립(道成德立)이며 도성덕립은 불사영생의 대도를 완성한 후 세상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이니 결국 구세주가 됨을 말하며 약수(握手)는 하나님과 손을 맞잡아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소위 신인합일(神人合一)이 되었음을 말하고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백보좌(百寶座)에 완전히 좌정하였음을 뜻한다.

사인불인천신강(似人-not天神降) 즉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